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한반도, 6.25전쟁 이전과 유사한 상황”

### 이 땅의 전쟁을 지원한 미국은 한국의 영적 동맹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 한국 정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영적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선교신문은 최근 미얀마장로교 신학교 학장이자 인도차이나연구소 소장 전호진 박사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 박사는 “기독교 관점에서 중국은 결코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다. 중국은 우리를 침략한 나라이며 미국은 우리의 영적 동맹국”이라고 밝혔다.

전 박사는 “당시 주목받는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박사는 한국 동란은 민족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참전과 지원을 외쳤다.”며 “1952년 12월에 한국을 방문, 한국에 복음을 전파해 선교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그 같은 영적전쟁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박사는 뉴스위크지 3월 10일 자 기사 ‘박근혜 물러간 이후 한미 관계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

울은 워싱턴에서 멀어지고 북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 중국, 미국의 무력 증강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서방세계보다 중국과 더 가까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출처: 선교신문> [GNPNEWS]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1)

**기도** |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놀라운 은혜를 받아 세계 선교의 한 복판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는 견해와 입장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과 혼돈이 6.25 동란 이전의 상황을 느끼게 할 정도로 암울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주시길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 미얀마 인레호수

제공: WMM

**미얀마** 인레호수에선 수상이장이 열린다. 저마다 작고 날렵한 배 안에 갖가지 물건을 싣고 강 위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판다. 오늘 장사하러 나온 아저씨 배에도 이것저것 물건이 많다. 각종 모자와 액세서리, 갖가지 모양의 장식품, 바나나와 오렌지. 작은 배 안에 저 많은 물건을 참 가지런히 잘도 정리해 놓았다. 이 작은 배 하나가 그와 가족의 인

생과 미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작은 배에 무언가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행복은 쉽사리 찾아오지 않는다. 찾는다고 해도 행복의 기준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행복의 이유가 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

가로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받아보았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나는 가졌는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29)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1)

## “인생은 즐겁게 살다 가는 것”...“과연 그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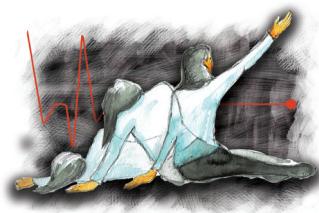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당신은 인생에 대해 낙천적이시군요. 그래서 아웅다웅 살기보다 조금은 여유롭게 살고 계시네요. 모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당신. 현명한 인생관으로 여기며 그렇지 않은 삶을 택한 사람들에게 해 줄 말씀도 많으실 테죠?

그러나 아무리 낙천적 인생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를 만나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들쳐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고, 집에 불이 나면 부리나케 불을 끄실 겁니다. 당연히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는 문제에 걸맞게 대처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낙관적 관조 속에 묻어 두었던, 그러나 너무나 중대하고 급박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그 일의 결과는 지금 당신의 결단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의 문제는 당신이 낙천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앞으로 냉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만족을 위해 살았던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반역죄를 자신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당신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들 맞이하는 죽음’. 그것도 낙천적으로 좋게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죽음’이 끝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GNPNEWS]

### INSIDE

- 02 뉴스** | 유럽 기독교인 줄어드는 영국, 교회 예식도 '사상 최저'
- 03 현장 리포트** | “열방의 청년들, 인종 국경 뛰어넘어 ‘북한의 복음화’ 품다”
- 05 인터뷰** | 김영미 선교사 “섬기다가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하나님의 약속에 운명을 건 사람들”
- 06 뷰즈인 북스** | 마틴루터의 기도 친구 이발사를 위해 집필한 ‘기도하는 법’



유럽

# 기독교인 줄어드는 영국, 교회 예식도 '사상 최저'



▶ 출처: 텔레그래프 캡처

기독교인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영국에서 교회예식의 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프리미어 지는 영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14년 교회에서 치러진 예식은 4만9717건에 불과하

다."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로, 같은 기간 교회 밖에서 치러진 예식(17만9344건)의 1/4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결혼 예식에서 종교의식을 동반한 경우는 28%에 그쳤다. 1964년 교회 예식이 6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25년 만에 40%의 예식

이 교회 밖에서 이뤄져 온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교회가 미혼 커플들을 환영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교인 수 감소 역시 교회 예식이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6년 5월 영국 사상 처음으로 종교가 없는 국민의 수가 기독교인 수를 넘어설 정도로, 영국 내 기독교인의 감소는 심각한 실정이다.

2016년 '영국 사회적 태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영국인의 약 50%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1983년에는 31%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56%는 종교의식에 전혀 참석하고 있지 않으며, 14%만이 정기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NPNEWS]

아시아

# 시리아 내전 6년, 사망자만 32만 명 넘어

시리아에서 약 6년 동안 진행된 내전으로 32만135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의 말을 인용해 14일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15일 남부 다라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6년이 흐르는 동안 이처럼 많은 이들이 죽고, 특히 작년 말 알레포 전투가 격화되면서 최근 인명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사망자만 9천 명에 이르고, 6년간 민간인 사망자는 9만6천 명이며, 이 가운데



▶ 출처: 오픈도어 선교회

데 1만7400명은 어린이다.

시리아군과 친정부 민병대는 각각 6만900명과 4만5000명, 외국 부대원은 8천 명이 전사했다.

시리아 반군과 극단주의 조직원도 각각 5만5천 명 가량 사망했다.

이 가운데 약 4천 명은 신원불명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시리아인 490만 명이 전쟁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했고, 국내 이재민도 630만 명이다. [GNPNEWS]

아시아

# 중국에서 탈북민, 잇따라 체포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탈북민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뉴스가 17일 밝혔다.

VOA뉴스는 중국 전역에서 실시된 대중교통 승차권 실명제에 따른 것이라 분석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지난 12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출발해 허베이성(河北省)으로 이

동하던 탈북민 7명과 중국인 브로커 1명이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개인 승합차량으로 이동하다 공안 초소에서 붙잡혔고 현재 선양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북한에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한국선교단체의 도움을 받던 탈북민 3명이 개인 승용차를 빌려 라오스 국경 지역 근처에 갔다가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으로 체



▶ 중국 광둥성 선전 기차역에서 경찰이 플랫폼을 순찰하고 있다(출처: VOA).

포됐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최근 모든 지역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른바 '승차권 실명제'를 도입, 이 때문에 탈북민들의 이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3.5~3.14)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시리아 '전쟁범죄'로 의료진 800여 명 사망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현지에서 벌어진 각종 '전쟁범죄'로 의료 인력 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주로 시리아 정부 지원 병력에 의해 병원 폭격, 총격, 고문, 처형 등으로 희생됐다.

하나님, 전쟁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시리아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드리는 영광의 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구합니다.

### 브라질, 이번엔 황열병 비상...백신 접종 전면 돌입

지난해 지카 바이러스 공포에 떨던 브라질이 올해는 황열병 비상이 걸렸다. 현지언론은 13일 리우데자네이루 시 당국이 황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백신 접종에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주님,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다시 새로운 고통이 밀려오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로 인해 자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 이탈리아서 잠자던 노숙자에 기름 끼얹고 불붙여 살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주도 팔레르모에서 11일 잠자던 노숙자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산채로 불태워 죽인 끔찍한 사건으로 이탈리아가 충격에 빠졌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보도했다.

오, 하나님.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반응해버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복음 없는 사람의 마음이 죄뿐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순전한 복음의 광채가 밝히 비취질 그 날을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 북한, 논밭 갈아엎고 우상화 시설물 건립

북한이 최근 논밭을 갈아엎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기 위한 시설물들을 건립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은 우상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담대하게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며, 이들을 통해 북한을 돌이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3월 4주 ~ 4월 1주

- 3월 4주(3.27~4.1)**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유\*\*) 010-3689-7133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5408-6348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3.27~28, 30~31(10시~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 010-8268-6879
- 3.28~31(07시~19시)**
  - ▶ 전북 전주 / 시향교회 (정\*\*) 010-8295-6889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 010-5408-6348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3.31~4.1(22시~22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4.1(06시~18시)**
  -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 010-5408-6348
- 4.1(08시~20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4.1(08시~20시)**
  -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 ▶ 서울 강남 / 강남선한목자교회 (박\*\*) 010-9394-4795
- 4월 1주(4.3~4.8)**
  -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 010-8268-6879
  - ▶ 전북 전주 / 전주은혜샘교회 (정\*\*) 010-4272-9905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070-4803-9026~7, 010-5424-4641 www.prayer24365.org



# “열방의 청년들, 인종 국경 뛰어넘어 ‘북한의 복음화’ 품다”

로잔청년지도자모임(YLG), 복음에 역동적인 동아시아지역모임으로 분화

지난 2016년 여름 로잔운동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청년지도자모임(YLG)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복음의 필요가 가장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향한 연합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임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유지영님의 참관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시 22:27)

전 세계 각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오색찬란한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랑스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영어로 주님의 승리를 그리고 한국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습.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 같은 이 모습은 지난 2016년 여름, 자카르타에서 열린 로잔 청년지도자 모임(Lausanne Younger Leaders Gathering 이하 YLG)의 마지막 밤 모습이였다.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틀 등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로잔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정신 아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동원한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그리고 한 세대에 한 번씩, 세계 선교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젊은 리더들 또는 리더십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서로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지도자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제1회

모임은 1987년 싱가포르에서, 제2회 모임은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렸고, 제3회 모임이 2016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 로잔대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라

2016년 제3회 모임에서는 140여 개국에서 온 1000명이 넘는 젊은 리더들과 멘토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같이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대한 이야기 안의 연합(United in the Great Story)’이라는 주제 안에서 소그룹, 워크숍, 지역별 모임 등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후속 모임들이 나라와 언어, 사역을 넘어 맺어졌다.

한 예로, 북한에 실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회 기간 중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면서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한국 참석자들, 북한에서 실제 사역을 하고 있거나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

에 헌신하고 있는 해외 교포나 탈북민 형제 등이 모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모임 현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참석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B국의 한 청년 지도자는 이 모임에 참석해 자국 교회들이 북한을 품고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R국의 한 청년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북한을 품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흔히 북한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의 청년 리더들이 북한을 놓고 기도하며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임의 결과로 R국 청년은 북한 사역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실제로 북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르던 사역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역과 지역이 함께 연합하고, 사역의 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형태로 대회 기간 중 계속해서 곳곳에서



이뤄졌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온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서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논했고, 캠퍼스에서 학생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적용했던 각자의 사역 지혜들을 함께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일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진행된 것이 아니라 YLG 기간 중 즉석에서 이뤄진 모임들이었다. YLG의 목적대로 세계 젊은 청년 리더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관계들이 맺어지고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 YLG 이후, 동아시아 지역 모임 결성돼

YLG 모임 이후 약 6개월이 흐

른 지금,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2017년, 이와 같은 청년 지도자 모임을 동아시아 규모로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다. YLG 2016에 참석했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더 다양하고 많은 청년 리더들이 함께 참석해, 특히 동아시아 지역(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홍콩/마카오, 북한)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로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서로 반목하는 긴장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필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기에 이 지역 청년들의 연합을 통해 이 세대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세대를 시작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적인 교회를,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를,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 주님 나라 영향을”이라는 로잔의 비전이 실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GNPNEWS]

유지영(선한목자젊은이교회)



## 월드 뷰 World view

# 중국, ‘기독교의 중국화’ 종교정책으로 가정교회 위기

한국 선교사, 중국에서 잇따라 추방돼...중국선교 방향 재설정돼야

‘기독교의 중국화’ 깃발을 내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종교정책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박멸하고 선교사 추방 등 선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웹진 ‘중국을 주께로’ 3월 호가 전했다.

중국 종교사무국이 마련한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부터 시작된 2~3년 동안 실시된 가정교회 실태 조사를 토대로 2020년대 중반까지 가정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또 매년 선교사들의 추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선교사들의 추방이 최근 부쩍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한국 선교사 가정집 30여 곳을 공안이 급습, 32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추방했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의 선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강제 출국이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선교사들을 체류 목적 외 활동으로 적발·퇴거 조치했으며, 201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지

난 1월 26일 국내 언론에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11일에는 옌지시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목사 등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9일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미국 국적의 박원철 목사, 중국 국적의 김모 전도사, 손모 전도사, 한국 국적의 김 모 씨”라며 “모두 남성으로 선교 목적으로 활동하던 이들”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 외에도 중국

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와 목회자들에 대한 입국 거부, 비자 연장 불허와 체포, 추방(강제 출국) 조치 등이 중국 전역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종교는 정부의 정치 권위를 인정하고 정부의 영도와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종교조직에 대해 행정관리를 시행한다. 그러나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왕취안(王作安)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은 지난 1월 9~10일 베이징

에서 열린 2017년 전국종교국장회의에서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 곧 공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의 목표는 국가 안전과 종교업무의 법치화, 사회주의에 조응하는 종교이다. 즉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체제 밖 가정교회’를 철저히 박멸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개신교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 왜 기독교가 개혁되어야만 했는지 한국교회는 되짚어봐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방향도 재설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GNPNEWS]

기획 | 다시 집으로(1)

## 아들의 커밍아웃과 엄마의 절망...하나님을 만나다

미국의 중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치의과대학원에 다니며 촉망받던 한 남자가 동성애와 마약에 빠져 인생의 극단으로 치닫다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다. 그의 뒤에는 아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단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동성애, 마약, 자살, 가정의 붕괴. 이 세대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한 가족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크리스토퍼 위안, 안젤라 위안의 수기 '다시 집으로'(대성출판사, 2017)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안젤라,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

시카고에 터를 잡은 지 24년이 지났다. 그날은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가 집에 온 날이었다. 그 아이는 지난 가을 시카고에서 켄터키 루이빌의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편입해 3학년 과정을 마친 상태였다. 1년 후에는 남편과 함께 가업을 이어 부자가 나란히 새로 마련한 차과 건물에서 일할 예정이었다. 식구가 한데 모여 일하며 같이 사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열망했다. 그러나 그날 밤, 크리스는 우리 부부에게 커밍아웃(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했다. 내 아들이 게이이고, 고칠 생각이 없다는 사

실에 나는 망연자실했다. 남편과 나 역시 깊은 골이 있었다. 우리는 1964년 미국으로 건너와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러나 아들의 커밍아웃으로 평소 꿈꿔온 아름다운 가정은 물거품이 됐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다. 다음날 목회자를 만났지만 아무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 그에게서 받은 작은 책자 하나를 들고 나는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나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콜린 쿡이 쓴 '동성애자에게도 문이 열려있을까?'(1985)라는 그 책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심지어 동성애자까지도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쓰여 있었다. 책을 읽을수록 그 모든 말이 마치 내게 하는 말처럼 보였다. 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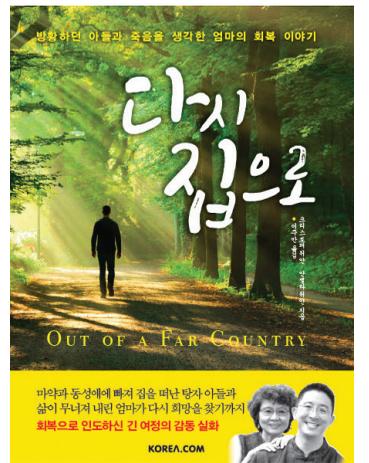
▶ '다시 집으로'의 공동 저자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과 어머니 안젤라 위안의 모습.

로 나는 책자 뒤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 일대일 양육을 받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나를 찾지 않았다.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보낸 후 6주 만에 시카고로 돌아갔을 때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안방 샤워실을 기도실로 만들고 말씀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얼마 후 남편과 나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남편도 복음에 마음을 열고 우리 사이의 깊은 갈등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세계에 있었지만 내 아들의 미래도 우리처럼 밝기를 염원했다.

### 크리스토퍼, "나는 게이이다"

루이빌로 편입 후 게이 커뮤니티

에서 1년간 활동하고 나니 부모님께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부모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는 것이 통과 의례다. 어머니는 동성애와 가족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다. 차라리 훌가분했다. 나는 루이빌로 돌아와 낮에는 치과대학 학생으로, 저녁에는 게이클럽의 인기 있는 바텐더로 이중생활을 했다. 게이 친구들이 진짜 내 가족이었고, 이곳이 진짜 내가 속한 곳이었다. 얼마 후 어머니가 루이빌로 찾아왔다. 종교라면 질색을 하던 어머니는 성경을 읽고 구세군 회관에서 얻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의 권유에 못이겨 동성애에 '박식하다'는 사람을 만나거나 집회에 따라가기도 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결과들에 대해 말했다.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간청도, 내가 동원한 그 어떤 방법도 나를 바꾸지는 못했다. 중국인으로 태어났듯이, 나는 게이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해 스물세 번째 생일을 맞은 나는 케빈과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16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다. 12월 중순, 나는 이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새로 사귄 친



구들과 클럽에 가서 처음 약물에 손을 댔다. 나는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량의 마약을 사서 클럽과 동성애자 수천 명이 모이는 파티에서 마약 중개 사업을 벌였다. 사업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불임성 좋은 내 성격도 한몫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 소홀해졌지만 상관없었다. 주말만 되면 나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날아갔다. 대형 게이 파티에 가면 맞은편에서는 기독교 시위자들이 성경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회개하라!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짓이다!" 기독교인들의 얼굴에 드러난 증오감을 보며 그들이 불쌍하기까지 했다. 나는 댄스 무대 한가운데서 춤을 추며 소리쳤다. "여기가 천국이야!" <계속> [GNPNEWS]



### 선교 통신

## 100여 명의 성도, 성경퀴즈대회에서 '低비용 高감동' 국수뷔페까지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 예배를 마친 후, 환우를 위한 예배까지 드렸다. 현지교회 사역자가 오후에 심방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내게 동행을 요청했다. 얼른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기다렸다. 차량 봉사로 섬기는 한 성도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집 밖에서 경적을 '뽕뽕' 울려가며 나오라고 부른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이곳은 아픈 환우들을 위한 심방이 활발하다. 덕분에 환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주님이 고쳐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이들도 간혹 있다.

약속대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덜커덩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교회에 도착했다. 몇몇 교우들은 모임을 늦게 마쳤는지 이제야 늦은 점심식사 중이다. 찹쌀밥을 손으로 말아 생야채나 나무 잎사귀로 씹을 싸 소금간장에 찍어먹는 식사는 이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에서는 국그릇에 함께 숟가락을 오가며 친분을 확인하지만,

여기서는 때 묻은 손가락으로 먹던 찹쌀밥을 같은 장에 찍어 먹으며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 같다.

식사를 마치고 한국산 낚은 승합차에 16명을 태워 출발했다. 도착한 곳에는 어린이까지 포함한 10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있었다. 성경암송퀴즈대회가 있다고 한다. 내게는 미리 얘기하지 않은 일정이다. S시의 핵심교인들이 다 모인 것 같다. 나를 목양실로 인도해 특별히 커피를 한 잔 대접한다.

이 지역 사방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4개 교회 성도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두 모인 듯 했다. 청년들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중년의 남녀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협력하여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는 이를 흐뭇하게 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 틈에 끼어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퀴즈대회는 두어 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회가 끝나자 간단한 선물과 상품을 나눠주고 준비한 국수를 함께 먹었다. 매운 고추기름

과 설탕, 야채 등 식성에 따라 다양하게 먹는다. 저비용 고감동(低費用 高感動) 국수 뷔페에 부담이 없다. 그저 함께 모이고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이 무르익는다.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져 승합차를 보유한 성도의 섬김으로 교회 성도들과 한 환우 가정에 모였다. 이곳 성도들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차량이 있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모임에 대부분 참여한다. 성도들의 모임에서 삶은 고구마나 타피오카 같은 간단한 음식이라도 나누며 다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내게 기도를 요청해 환우를 위해 기도한 후 인사말을 나눴다.

### 성도들의 차량 봉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행

"나는 물질로는 여러분을 섬길 수 없는 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 너무 행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삶



을 한국의 동역자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겠지만, 고난이 있을 때 함께 찾아가 사랑하고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모임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과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모임이 끝나며 여러 대의 차로 분산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나를 오토바이에 태워준 성도는 기쁨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집에까지 또 기쁘게 바래다준다.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는 곳이지만, 풍성한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GNPNEWS]

L국=L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섬기다가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십일 시에 부름받은 일꾼  
**김영미 선교사**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공흥사역 단체인 '전능자의 그늘 미니스트리·ShAM(이하 썬)'은 최근 자체 훈련과정을 통해 제1호 선교사를 배출했다. 한 알의 썩어진 밀알과 같은 섬김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 순종한 주역은 어떤 분일까? 손주를 보고 편안하게 쉴 연배에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사람, 김영미 선교사를 만났다.

- 어떻게 썬에서 섬기게 되셨나요?

“썬이 설립되는 과정을 지켜봐서 알긴 했지만, 이 단체에 헌신할 마음은 없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교제가 시작되면서 사역에 참여하게 됐죠. 이곳에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곳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점점 더 확증해 주시고 있어요. 이곳에 헌신한다는 것은 제 남은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린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가는 이 삶이 종신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쫓아 보내지 않는 게 감사했죠. 처음에는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은 살고 있던 집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버려서 이제는 돌아갈 집도 없어요. 말 그대로 퇴로가 차단된 셈이죠.”

- 지금 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전부 다 해요. 함께 살고 있는 아기들을 돌보는 것부터 주방일까지. 이곳 식구들은 내 일 내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8명의 아이들과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할머니 한 분을 섬기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하고 있죠. 사역자가 모두 7명인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 복음 만나고 헌신의 삶을 시작

- 헌신하게 되신 과정을 좀 나누어 주세요.

“저는 제가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웠어요. 게다가 교회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면서 여러모로 절망의 시간을 겪었죠. 목이 말랐어요. 그러다가 2014년 겨울에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당시에 저는 화장품



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간 복음의 삶을 함축하며 실제로 경험하는 공동체 훈련을 받았어요.”

-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군요.

“네,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점점 더 삶을 드리고 싶어졌던 거죠. 사실 썬 사역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아이를 키워본 적도 있고, 예전에 치매로 쓰러지신 시어머니도 돌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고 잘 아는 사역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까지도 내가 만일 헌신자가 된다면 뭔가 드러나 보이는 사역을 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었어요.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금도 곳곳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하고 생각이 들면서, 썬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 헌신하고 나서 힘든 부분은 없으셨나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참 안타까웠어요. 이 지체들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주님께 삶을 드려서 헌신했는데, 나는 너무 늦게 삶을 드렸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십일 시에 마지막으로 부름 받아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포도원

포도원과 같이 저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살아온 경험으로 젊은 지체들을 볼 때 판단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말씀해주시면 그 고개가 숙여졌어요.”

## 포도원 품꾼같이 불러주심에 감사

- 나이가 헌신을 막을 수 없는 거군요.

“그럼요. 언젠가 한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늙어 슬어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들 섬기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라는 격려를 듣게 되었어요. 아멘이 되었어요.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육체 가지고 뭘 그리 아등바등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섬기는 일도 너무 기쁨이 되고요.”

- 가족들은 이 삶에 대해 이해를 하시나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성장 과정을 보냈어요. 지금까지도 형제들 중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도 다들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봐도 저를 볼 때 선하게 사는 삶이라고 나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까요.”

-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어요.

“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한 번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냐.’며 제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지금은 가족에 대해 연연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더욱 요지부동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가족들은 정말 저의 기도제목이고 지금도 계속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중이에요.”

-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23살 무렵, 친구 소개로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얼마 후에 주일학교 봉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자기 의와 자기 열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나의 영광을 위한 노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단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의 이곳저곳에 그물을 쳐놓으시고 물고기를 몰듯 그렇게 몰아서 결국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오다 보니 이곳이었던 거죠.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 사역하시면서 어떤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곳에는 아이들이 여덟 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참 재미있고 즐거워요. 하루에 기저귀를 몇 번을 가는 지 모를 때도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아이들 재롱부리는 것을 보면 피곤이 싹 가시죠. 태어난 지 7일 만에, 9일 만에 온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방 가운데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저희 썬의 비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일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유치원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온 열방에 썬이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선교훈련을 받으며 준비아로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긴 정말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군요. 어린이 사역을 하면 한 300명씩 몰려왔어요. 그곳은 우리나라처럼 입양하는 절차들이 까다롭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런 사역들을 더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해야 할 일은 무궁

무진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썬은 모델하우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 8명의 아이와 할머니 돌봄

- 이 사역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네요.

“정말 그래요. 지금 이곳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들이 양육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고 말을 배우면서 지금은 그 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는 결국 이 아이 때문에 저희와 연결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지금은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이 사역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 단순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선교완성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이곳이 땅 끝이고, 또 열방이에요. 지금은 사역자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일에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요즘 기저귀나 분유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비싸죠. 사실 저는 평생 돈을 벌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재정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재정을 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멀리서 볼 때에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대단하게만 보였는데, 이 안에 있다 보니 정말로 살아지더군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날아와 떡과 고기를 물어 왔듯이,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이들 웃으며, 장난감들을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채우시는지. 오직 저희에게는 순종만이 필요했던 거죠.”

-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냥 뭐, 사는 거죠. 식사당번 돌아가고, 예배시간에는 사역자 반반씩 나눠서 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받은 예배를 드려요. 하루하루 빨래도 엄청나게 나오죠. 그리고 청결해야 하니까 청소도 자주 하고요. 만일 감기 걸리는 아이가 생기면 전염되면 안 되니까 격리도 해야 하고, 그 아이는 또 따로 봐야 하고...”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사사시대에 빛난 복음 (4)

## “하나님의 약속에 운명을 건 사람들”

사사시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복음은 드러났다. 그 복음은 소망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바로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 보아스가 있었다.

### 실패한 역사 가운데 드러난 복음

그는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었던 여리고 성에서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여인,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다.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을 그녀의 존재와 삶으로 생생하게 보여 주는 복음 자체였다.

그의 어미처럼, 보아스 그의 삶도 ‘다 틀렸다.’던 사사시대에 빛나는 복음 자체였다. 그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완벽하게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조금도 시들지



않은 원색적이며 보석 같은 신앙을 가졌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가? ‘나만 홀로 남았다.’며 탄식하고 부르짖던 엘리야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칠천 명을 남겨 두셨던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은 반드시 남겨두신 사람들, 교회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총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은 역사 한복판에서 더욱 빛났다. 복음을 가진 교회가 넘어진 다 해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형편없는 꼴을 하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가진 유일한 곳이 교회다.

주님은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

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신부를 향한 불붙는 마음에 주님은 지체하실 수가 없다. 주님은 가장 적합한 시간에 지체하시지 않고 언약을 이루신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히 10:37)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결코 지체하시지 않고 속히 이루실 것이다.

### 보아스 속에 보이는 “고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라 하니라”(룻 3:18b)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잠잠하지도, 쉬지도, 머뭇거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사 62:1).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기 전에는 쉬지 않았던 ‘기업 무를 자’(고엘, goel) 보아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는 죄 가운데 박살 나고 황무지처럼 버려진 우리의 ‘고엘’이 되시려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여자의 후손’(창 3:15)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셨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복음이 생명이 된 보잘것없는 사람, 죽음 외에는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는 룯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이처럼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운명을 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경건의 열망을 가진 이 땅의 라합, 룯,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것이다(2016.4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 Nehemiah 52 Prayer 2017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40년째 사랑의 복음과 성령의 열매를 위한  
기도 24-365  
기도 24-36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

## [느헤미야52기도정보집 특별판]

마침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52기도 특별판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제 기도의 순종만이 남았다. 사탄과의 전쟁을 끝내고 선교완성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기도하자.

이 땅의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여 선교완성을 이루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아는 자로 무릎을 꿇자!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

원수들이 낙담하도록 기도의 불을 일으키자!

- 「초대의 글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중에서 -



1권 : 복음의 영광 2권 : 오직 은혜의 복음 3권 :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4권 :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5권 : 절대 믿음 6권 :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세트 : 43,000원  
날권 : 8,000원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것”

“뭔가 특별한 사역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매 순간 부르심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죠. 너무 피곤한데 아이들이 울면서 잠을 자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애 좀 재워달라고 정말 한탄 같은 기도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도 많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결국 내 존재가 복음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많이 다루어 주셨고 지금도 계속 바꾸고 계시죠.”

- 믿음의 삶을 견고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만난 복음은 참 단순해

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엎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헌신하기까지 제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밤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보화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되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가 다 따지고 있는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부르신 그곳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내 분별이 혹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수정해 주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것 같아요.”

[GNPNEWS]

J.D



▶ 지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웹미니스트리 가족들과 함께.



# “오해였다. 나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였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봉사를 해왔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판단했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럴수록 진리에 대한 갈망은 커져갔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시며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셨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복음이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막상 열방을 위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지 못하고, 선교사로 결단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었다.

어떻게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 제일 쉬워 보이는 중보기도를 하기로 했다.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중보기도 학교에 지원했다. 학교가 시작되고 몇 주간은 너무 좋았다. 평소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기에 강의 시간도 좋았고, 열방의 소식들을 들으며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의 소원, 내 가족,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다. 나와 상관없는 열방의 소식을 놓고 기도할 때 나오는 눈물이 신기하기만 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은 점점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내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던 중 해외 아웃리치를 위한 팀이 구성되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이 요구되었다. 그동안 욕심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던 일들도 겹

쳐져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여기저기 계획이 엉키고 그로 인해 몸도 아파왔다. 그러다 3박 4일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방기도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갔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

### 기도 자리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 마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잘것 없는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초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기도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가 열

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비로소 하루에 한 시간씩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하게 되었다.

주님은 계속해서 다른 일보다 주님과 관계가 최우선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 아웃리치가 시작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욱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주님의 일로 항상 바빴고, 나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늘 내 마음은 강박했다. 그런 나에게 아웃리치는 진정한 안식이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때 주님은 내 마음을 물댄 동산과 같이 바꾸어가셨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복음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과 달리 많이 가지려 하고 나누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빠른 인생을 살았던 내가 진정 가난하고 험벗고 궁핍한 자였음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나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자.’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은혜였다. 주님은 내게 늘 고통을 주시고 많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 모두 나의 오해였다. 주님은 나를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신부라고 하셨다. 내 마음은 녹듯 녹아내렸다.

선교지를 떠나기 전, 하나님은 내게 이사야 58:10~11절 말씀을 주셨다.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앞으로도 주님과 사랑의 행보를 계속하며 행하실 일들을 설렘으로 바라본다. 날마다 물댄 동산처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마라나타!

[GNPNEWS]

주안나 전도사(아름다운 교회)



##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안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시베리아의 한파보다 더 추운 날이 이곳 중국 변방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겨울 하늘은 맑지만, 오늘은 너무도 슬픈 소식을 들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훈련시켜 보낸 아이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위부에 적발되고, 다른 믿는 형제를 구하기 위해 비밀을 지키다 결국 끔찍한 총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성경을 배운 꽃제비

북한 땅에는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세계 북한의 이탈 주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북한의 어린아이들) 세 명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아이들에게 석 달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탈 주민과 함께 산에 숨기우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명이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 중에는 그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 오늘은 국수가 먹고 싶어요. 내일이면 북조선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형과 같이 국수가 먹고 싶어요. 우리 국수 먹기 시합해요! 저희 꽃제비들은 먹는 순간이 오면 재빨리 후딱 먹어야 해요. 그동안 단련이 되어 빨리 먹는 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3년간이나 배고픔에 시달렸던지라 그 아이는 연신 국수를 입에 가져다 넣어, 한 사발을 금세 비우고, 또 한 사발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북한으로 다시 간다 하기에 저는 속으로 ‘너는 실패할 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북조선으로 들어간 그 아이는 장마당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꽃제비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전과가 끝나면 재빨리 도망가는 수법을 통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장마당에서 굶주리던

많은 꽃제비들은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14세의 한 소년에게 복음은 물론 성경책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14세의 소년은 너무 기뻐 자기의 어머니에게 가서 성경을 보여 주며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본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 책을 어디서 받아왔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어머니의 성화에 “저기 장마당에 있는 꽃제비 대장에게 받았습네다.”라고 실토했습니다. 곧 17세 소년은 안전부에 고발되어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곧 보위부로 넘겨졌고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 돌아오지 못한 17세의 소년

“이 간나 새끼!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말해! 그 아이에게 했던 예수 이야기가 모두 날조된 거짓이라고 말해!” 그러자 소년은 “제가 말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네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안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열네 살짜리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보위부 직



원은 심한 매질을 하고 그 아이를 감금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있던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게 돌아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두 분을 북으로 보내어 그 아이의 행방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 아이가 지난 11월에 모처에서 총살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순교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 지켜보고 있던 보위부 직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 넘어져도 또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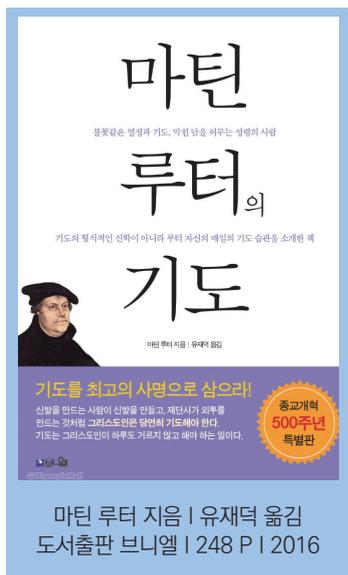
마리아 드 코시카오(Maria de Coceicao)는 리스본에서 종교 재판관에게 체포되어 고문대에 올려졌다. 어린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로마가톨릭의 교리들을 인정하고 말았다. 재판석에 불러 나간 그녀는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했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억지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고문대에서 그녀는 또 넘어졌다. 다시 재판관 앞에 불러 나왔다. 그녀는 이전과 같이 대답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내 육체의 연약함에 두 번이나 지고 말았다. 어쩌면 고문대에 있는 동안 또다시 약해져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100번의 고통을 준다 해도 고문대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억지로 고백한 사실들을 다시 부인할 것이다.”

고문은 이어졌고 그녀는 곳곳하게 고통을 견뎌냈다. 고문은 오히려 그녀의 용기를 더욱 담대하게 할 뿐이었다.

[GNPNEWS]

# 친구 이발사를 위해 집필한 ‘기도하는 법’



이 책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그의 오랜 친구 이발사 페터 베스켄도르프를 위해 쓴 글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루터가 친구의 요청에 따라 집필한 내용이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된 것이다.

루터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의 단순한 기도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주기도문을 가지고 구절

마다 주님의 마음을 새기며 간구하는 자신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다. 개인의 믿음의 삶을 위한,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곱씹다보면 어느새 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의탁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영혼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이미 모범이 되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십계명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계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으로 받아 먼저는 감사기도로 표현한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 십계명은 단지 상징적인 율법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할 기준을 세심히 다 담고 있음을 루터의 기도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말씀에 비추임 받은 그의 진정한 참회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결

국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생명이 가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으며 올려드리지는 간구 역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아멘!'으로 함께 선포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루터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였던 매일의 기도습관이었으며 구체적인 삶이 있기에 더욱 도전이 되고 공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은 기도의 길잡이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창조 구속 성화라는 주제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님과 교제하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임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이 책의 2부는 레이먼드 브라운의 저서 중 마틴 루터의 기도생활을 자세히 소개한 내용을 참조 발췌하였다. 신발 만드는 사람이 신

발을 만들고 재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틴 루터의 말처럼 이 내용은 '기도를 제일의 사업으로 삼으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다. 루터가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고난은 이론이 아닌 실제였다. 친한 동료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산 채로 화형을 당하고, 그 자신도 신장결석으로 생명이 위협할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되는 그 자리에서 루터는 기도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는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했다. 상황을 뛰어넘는 확고하고 강력한 믿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의 열매였으며 루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그의 기도는 복음 그 자체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의 기도 안에서 실제 되어 선포되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고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을 고백할 때마다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세력들과 담대히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게 한다.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혼자 가 아닌 기독교 국가 전체와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서 있음을 상기시킨다. 지금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 땅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끝까지 견뎌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지속되는 곳에 다다를 때까지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루터, 그가 기독교계에 남긴 업적은 비단 종교개혁만은 아니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기도의 증인이었다.

[GNPNEWS]

이귀영 선교사



## 11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제가 바보니까, 왜 제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벌써 두 해 전의 일이다. 아는 분의 소개로 한 선교단체의 항공 업무를 섬기게 되었다. 처음 섬기게 된 선교단체라 나름 신경이 쓰였다. 그때 그 팀의 담당자가 짐이 많은데 수화물 비용을 최소로 줄일 방법이 있냐고 문의해왔다. 그때는 이 사업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왜 이 사업으로 부르셨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 인지라 모든 선교팀의 어려운 상황은 될 수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었다. 곧 도움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고 선교팀의 짐은 추가비용 없이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었다. 감사 인사를 받으며 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연발했고 팀은 은혜 가운데 출국했다.

일주일 후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그 팀의 팀장이었다. 출발하는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나갈 때는 공짜였는데 선교지에 들어갈 때는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한다는 항의 전화였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모든 짐의 추가비용은 내야 합니다. 나가실 때는 말씀드렸듯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신 비용을 충당해서 섬긴 겁니다.”

“그럼 들어갈 때는 비용이 들어

간다고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 잘못이군요. 만약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으면 저희는 짐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 팀에는 방송사 기자들도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찍고 있습니다. 마치 사기를 당한 상태와 같군요.”

기가 막혔다. 복음을 만나고 화내는 나의 옛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증했다. 그러나 그 순간 죽었던 옛 자아가 확 올라오는 것 같았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법대로 해 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임의 기도 인도 순서가 바로 나왔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말씀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 절망이 다가왔다. 주님은 묵묵히 계시는데 나 혼자 화가 나서 외쳤다. '제가 바보니까? 법으로 해도 제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러자 곧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 은혜가 족하



다'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화물 비용에 따른 영수증을 꼭 챙기라고 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을 나누며 그 형제에게도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다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통화를 마쳤다. 그러나 영수증을 보니 또 속이 쓰렸다. 짐 값으로 수익의 몇 배를 물어내야 하니 말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이 다였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 2년이 지난 지금 감사하게도 그 단체와 연합을 이루어 주셨다. 유럽 P국에 우리 여행사 현지연락소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우리 회사로서는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선교에도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그렇구나! 좁아터진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내 소망을 하늘에 두기만 하면 나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결론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GNPNEWS]

이상호 선교사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7. 3. 2 ~ 3. 16 (가나다 순)

**개인**  
김나리 김명순 김민성 김사희 김선희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김유남 성남 안기숙 안병윤 안수경 안은경 오경숙 유지인 윤경석 이선세 이정희 이준진 이지영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정순복 정윤희 조희아 최영환 최정숙 현근향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김포전원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새순교회 서경산업 웹시흥지체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춘천헨시바교회 팔복감리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